

세무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1년 6월 pp.555~583
한국세무학회

세무학 전공자의 진로결정 및 수정에 관한 연구*

- K대학교 세무학과와 사례 -

최임수**

<요 약>

본 연구는 세무학 전공자들의 진로결정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진로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K대학교 세무학과 4학년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의 진로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2.1%가 공무원과 세무사가 되기 위해 입학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진로수정이 감소하며, 진로수정의 방향은 회사 취업으로 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를 수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진로를 수정하는 이유로는 진로의 막연한 결정, 목표 달성곤란 및 안정적 직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진로수정 여부에 공무원과 회사 취업변수는 10%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반면에 여학생 변수는 10%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학 전공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로지도로 진로탐색의 조기 실시, 진로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며, 진로별, 학년별 및 성별을 차별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요청됨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전국의 세무학과 및 관련 전공이 개설된 대학에서 세무학 전공자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진로결정, 진로수정, 공무원, 세무사, 회사 취업

* 본 논문은 2010년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한국세무학회 session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논문의 완성을 위하여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ischoi@konyang.ac.kr, 041-730-5553

I. 서론

대학생은 발달적으로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고 대학생의 진로지도는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고 나아가 이후 성인기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황매향 외 2007). 현재 대학생의 재학 중 가장 큰 고민거리로는 졸업 후 진로 문제이고 이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박동열과 김대영 2006). 진로 및 취업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은 더 나아가 대학생활 부적응과도 직결되며(허은영 2009), 적절하고 필요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런 관계로 대학은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불문하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평가,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사업)과 같은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 대학의 취업률을 반영하는 관계로 필요에 따라 대학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200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학교육 현장에서 나타난 주된 변화 중 하나가 대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대학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인프라의 강화와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지어는 대학교육의 목표가 취업에 있지 않는가하는 비판적인 소리까지 듣기도 한다.

대학생들의 진로지도나 취업에 관련된 업무는 주로 종합인력개발센터, 취업정보센터 및 학생생활상담소 등이 대학 전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법보다는 계열, 학과나 전공 단위, 성별단위 또는 진출분야별로 차별화와 세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고용시장의 경직과 학생들의 취업대란을 볼 때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초·중·고에서나 하는 진로지도를 대학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진로준비는 학생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기에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가고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하여 재수, 휴학 내지 졸업을 미루는 현실을 볼 때 대학이 학생 개인의 학습욕구와 사회적 교육욕구에 부합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책무(이현청 1993)이며, 현 시점에서 이러한 책무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을 수행하는 주체의 무게중심을 대학 전체 차원에서 학과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과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진로지도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여기를 통하여 개별 학생들의 진로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하여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관련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세무학과나 이와 유사한 학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나 분명한 것은 학생들의 진로를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무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입학 시부터 4학년이 될 때까지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대학생 중 이들의 진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실증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관련 교수에게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수행하는 데, 반면에 학생에게는 진로 관련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탐색적 연구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세무학 전공자들의 진로결정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진로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무학과에 입학하고자 면접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세무학과를 선택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결과, 다수가 공무원시험 합격이나 세무사시험 합격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년이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자주 바뀌게 됨을 관찰하게 되었다. 또한 재학생들이 공무원이 세무사 등 각종 전문자격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재학생이나 세무학과에 입학을 원하는 수험생들은 바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K대학교 세무학과 4학년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의 진로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은 공무원이나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 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회사 취업으로 진로를 수정하고, 진로수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진로의 종류와 성별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학 전공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진로탐색의 조기 실시, 진로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며, 진로별, 학년별 및 성별을 차별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요청됨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전국의 세무학과 및 관련 전공이 개설된 대학에서 세무학 전공자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방향모색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제 III 장에서는 연구를 설계하며, 제 IV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해석하며 가설을 검정한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본 연구를 정리하고 한계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진로와 진로수정의 개념

진로(career)는 한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들을 말한다

(김계현 1995). 진로는 직업(vocation)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생애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즉 진로는 개인이 일생동안 추구해 온 일의 총칭이며, 직업은 주어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일을 지칭하므로 직업생활 준비에서부터 은퇴까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김병숙 2006).

한편 진로수정이란 한 진로에서 다른 진로로 옮겨 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된 동기는 이미 주어진 진로에서 발전할 기회의 차단이다. 이미 결정해 놓은 진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거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진로수정은 개인적 성취가 보다 높게 평가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더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로의사결정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지속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진로는 생애역할의 연쇄적 결과로 봐야 할 것이며, 진로수정은 예상된 사건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 어떤 사건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다(Leibowitz and Lea 1985). 진로수정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처음 진로가 자신의 선택이 아닌 경우, 자신이 가졌던 이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생애 역할을 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현재 진로가 바뀐 가치나 흥미와 맞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인간수명의 연장, 은퇴에 대한 관점 변화, 경제적 필요성 등도 진로수정의 또 다른 요인이 된다(Kerka 1991).

2. 진로수정 영향 요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학 등 유사 분야와 관련된 진로결정이나 진로수정 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한 관계로 여기에서는 다른 학문분야에서 많이 연구된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진로수정 여부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분석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으로 한정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첫째, 학업성취도 또는 성적으로, 관련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진로성숙이나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이하다. 서정선(2002)은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6개교 1,2학년 942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로태도 성숙의 측면, 결정성·준비성·확신성 차원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진로 태도 성숙도를 보였다. 장숙은(2010)은 성적수준이 진로결정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해영(2006)은 학업성적에 따라 진로수정요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학년으로, 김현옥(1989)은 중3-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를 조사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직업정보와 문제해결 영역에서 학년의 차가 두드러졌다.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준비성, 현실성 차원에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진로태도 총점에서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고, 실업계 고등

학교의 경우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서정선(2002)은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도의 차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로태도 성숙의 측면, 결정성·준비성·확신성 차원에서 2학년이 1학년보다 진로태도가 성숙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숙은(2010)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학년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학년이 진로결정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고향자(1992)는 대학교 1-3학년이 비해 4학년이 더 합리적이고 덜 의존적이라고 하였다.

셋째, 진로의 유형으로, 장숙은(2010)은 취업을 선택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일수록 창업이나 진학을 생각하고 진학한 학생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임경미(2009)는 미용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조사한 결과, 졸업 후 미용관련 직업을 선택한다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과 다른 타 직업분야를 선택하려고 할 때 학생들은 진로를 수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처럼 진로의 수정 여부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별로, 성역할 사회화과정을 통해 강조되는 전통적인 남성의 특징에는 독립성, 객관성 및 합리성 등이 포함되며, 여성의 특징에는 의존성, 수동성 및 순종성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통적 성역할 사회화과정이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고향자 1992). 서정선(2002)은 성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준비성과 목적성 등 일부 분석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태도가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장숙은(2010)은 성별변수가 진로결정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해영(2006)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보수, 명성, 안정성 등의 외적 조건들을 중요시하며, 진로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고향자(1992)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덜 의존적이며 직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영(2005)은 이공계 여자 고등학생·대학생·출신 성인 여성의 경우에도 직업적 안정성이 큰 직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첫째, 대학생 지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세무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연구를 실시한 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학문분야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학생 진로지도 내지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이라고 하면 대개는 대학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학과차원에서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거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변화되고 수요자인 기업체와 학생의 요구수준이 급변한 상황에서 앞으로 대학생들의 진로지도는 대학차원과 학과차원에서 유기적으

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적하였다.

둘째, 세무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수정은 어느 정도로 일어나며 왜 일어나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셋째, 진로수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진로수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과 설문지에 기초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세무학 전공자들의 진로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 및 요인의 수도 다양하다. 그것은 진로를 결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단순한 모형만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기존의 다른 학문분야에서 실시한 진로연구를 보면 심리학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K대학교 세무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입학한 시점에서 현 4학년인 시점까지 어떠한 진로를 선택했었고 그것이 계속 유지 또는 수정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진로수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된 일부 변수와 일부 설문조사와 대학에서 구축해 놓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진로수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접근을 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K대학교 세무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지도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들이 세무학과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수학능력시험성적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동 학과에서 올린 공무원 및 세무사 시험의 성과 그리고 대학의 높은 취업률을 들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이 입학하여 졸업을 앞 둔 시점이 될 때까지 진로가 어떻게 바뀌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변수만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세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입학 시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자 세무학과에 들어온다. 이들은 학과 홈페이지나 입시홍보물 및 직접적인 인편 홍보 등을 통하여 입학하면 이미 합격한 학생처럼 공무원시험이나 전문가자격사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실제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수학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들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입학정원의 15% 정도가 합격하는 현실을 볼 때 입학당시의 꿈은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바뀌고 성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학년에는 전공 교과목으로 회계원리와 세법총론 등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들 전공교과목에 대한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올 경우 학생들은 공무원이나 세무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성적이 낮을수록 진로수정은 증가할 것이다.

입학으로부터 4년 동안 진로가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나 세무사가 되려고 들어온 학생들이 졸업할 때 이를 달성할 확률이 낮은 현실을 볼 때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진로에 따른 교육과 지도 등을 받을 때 얼마든지 진로를 수정할 여지가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입학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정도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왔다. 진로수정은 학생의 여건과 국가·사회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등이 반영되어 공무원이나 세무사가 아닌 일반 취업으로 귀결되고 이러한 이동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가설 2 :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수정은 감소할 것이다.¹⁾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얼마나 많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진로 수정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의 진로는 공무원, 세무사, 회사 취업, 공인회계사, 창업 및 사업 계승,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학 당시부터 공무원이나 세무사가 되려고 들어온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이 진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확히 하고 여기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면서 자신이 세워놓은 단계들을 하나씩 충족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일련의 과정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학생들은 진로를 수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진로별로 유지하는 비율과 수정하는 비율이 차이가 클수록 그 양상이 달라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진로의 종류에 따라 진로수정 여부가 다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성별 간에 진로수정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진로상담이나 종합정보시스템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무원을 선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길 원하기 때문에 진로수정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 1) 이는 연구모형을 통하여 분석대상자의 진로수정 여부를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를 유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에 진로를 수정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설정하였다.

가설 4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수정을 더 할 것이다.

2. 설문지의 설계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의 진로수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두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분야는 학년별로 진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세무사, 회사 취업, 공인회계사, 대학원 진학, 창업·계승, 기타 및 정하지 않음으로 구성되어 있다.²⁾

두 번째 분야는 진로수정을 어떠한 이유에서 내렸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막연한 결정, 달성 곤란, 안정적 직장, 적성 부적합, 경제 곤란, 전공 어려움, 선배 합격 및 기타 등 8가지로 되어 있다.³⁾

3. 연구모형의 설정 및 변수의 정의

앞에서 설정한 네 가지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로수정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text{CHG} = & \alpha + \beta_1 \text{SCR} + \beta_2 \text{SPM} + \beta_3 \text{JNR} + \beta_4 \text{OFC} + \beta_5 \text{CTA} + \beta_6 \text{COM} \\ & + \beta_7 \text{CPA} + \beta_8 \text{BNS} + \beta_9 \text{ETC} + \beta_{10} \text{SEX} + \varepsilon \end{aligned}$$

여기서, CHG : 진로수정 여부(수정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SCR : 성적

SPM : 2학년 여부(2학년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JNR : 3학년 여부(3학년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OFC : 공무원(진로가 공무원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CTA : 세무사(진로가 세무사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COM : 회사 취업(진로가 회사취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CPA : 공인회계사(진로가 공인회계사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BNS : 창업·계승(진로가 창업·계승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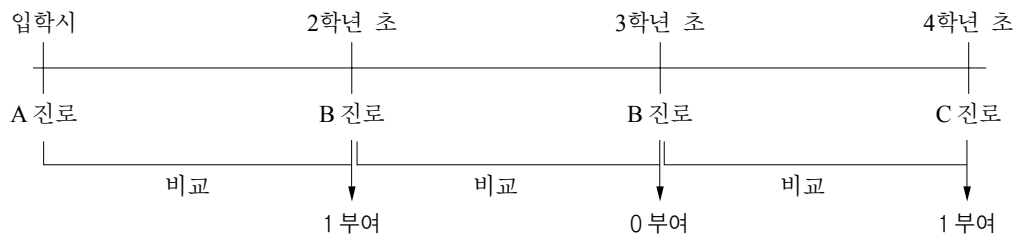
ETC : 기타(진로가 기타의 경우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SEX : 성별(여학생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 2) 이 설문은 종합정보시스템 상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으나 확인용으로 실시한 것이다. 비록 학생들이 설문지에 기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종합정보시스템 상 면담 및 진로계획 등 이전의 자료를 검토한 경우 학생별로 결정 및 수정한 진로 내용을 알 수 있다.
- 3) 첫 번째 설문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종합정보시스템 상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으나 학적변경 및 자료 미입력 등의 이유로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어 보완차원에서 실시한 것임을 밝힌다.

앞의 모형에서 종속변수인 진로수정 여부(CHG)는 1학년 → 2학년, 2학년 → 3학년 그리고 3학년 → 4학년 총 3회에 걸쳐 진로유지 및 수정이 일어났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변수화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수정여부 판정을 위한 기준시점으로는 2학년, 3학년 및 4학년 학기초로 정하였다. 각 시점에서 수정한 경우에는 1을, 반면에 유지한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일례로 갑이라는 학생이 공무원이 되고자 대학에 입학할 하였으나 2학년 시작 시에 세무사로 수정한 후 3학년 때에는 진로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4학년 시작 시에 다시 회사 취업으로 진로를 수정한 경우 1학년 → 2학년, 2학년 → 3학년, 3학년 → 4학년의 경우를 각각 하나로 보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각각 1, 0, 1의 값을 부여하게 된다.

<그림 1> 진로수정 여부 판단 시점 및 예시



또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것이다.

첫째, 성적(SCR)은 진로수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학년, 즉 1학년, 2학년 및 3학년 성적을 각각 계산하여 반영하였다. 이는 1학기 및 2학기의 성적을 평균하여 반영한 것이며, 이 점수는 K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⁴⁾을 이용하여 반영하였다. 성적은 4.5만점 기준이며 계산된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였다. 이의 목적은 성적을 잘 또는 잘못 받은 경우 진로수정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둘째, 학년으로 2학년 여부(SPM) 및 3학년 여부(JNR)는 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진로수정 여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진로를 수정 또는 유지하는 시점에서 2학년(또는 3학년)에 해당하면 1을, 아니면 0을 부여하였다.

셋째, 진로의 종류로는 공무원(OFC), 세무사(CTA), 회사 취업(COM), 공인회계사(CPA), 창업·계승(BNS) 및 기타(ETC) 등 6가지이다. 이는 진로수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이전의 진로가 무엇이었냐에 따라 이와 같이 6가지 변수로 분류하여 반영하였다. 그리고 진로수정 여부 판단 시점에서 이전의 진로가 특정 진로에 해당하면 1을, 아니면 0을 부여하였다. 이는 선택한 진로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수정 또는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가를 살펴보기 위한

4) 교수는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학과 학생들에 대한 모든 정보에의 접근권한이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4년 동안 학생 대상 진로상담, 효율적인 학생관리 및 친밀감 형성 등에 기여하고자 구축된 것이다.

목적이다.

넷째, 성별(SEX)변수로, 성별에 따라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의 진로수정 및 유지가 다른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여학생인 경우 1을, 남학생인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4.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K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0.6.7부터 2010.6.18까지 실시하였고, 배포 및 회수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표 1>과 같이 종합정보시스템 상 4학년 재학생 75명중 유학생 1명을 제외한 총 74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67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6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아니한 6명을 제외한 61명을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표 1>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4학년 전체	배 포	회 수	성적기준 미충족자	사 용	유효율(%)
75	74	67	6	61	91.0

IV. 실증분석 결과

먼저 분석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어서 진로결정 및 수정에 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분석대상자의 진로결정 추이, 진로수정 여부, 진로의 수정 방향, 성별에 따른 진로수정 및 진로수정 이유이다. 또한 진로수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일부 변수들을 반영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기로 한다.

1.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표 2>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32명과 29명으로 52.5%와 47.5%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출신지역과 출신고교를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온 학생은 2명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내 용	빈 도(%)
성 별	남학생	32(52.5)
	여학생	29(47.5)
출신지역	수도권	2(3.3)
	비수도권	59(96.7)
출 신 고	인문계	60(98.4)
	실업계	1(1.6)

주) 분석대상자는 내용에 따라 3년 기준 183명, 4년 기준 244명이 됨.

2. 진로결정 및 수정에 관한 실태 분석

분석대상자인 현 4학년의 학년별 진로결정 실태를 1학년 입학했을 당시부터 4학년 현재까지를 살펴보면 <표 3> 및 <그림 2>와 같다. 진로는 공무원 시험 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회사 취업,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대학원 진학, 창업 또는 사업 계승, 기타 및 미정 등 8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은 주로 공무원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에 입학하며, 이들의 진로는 공무원, 세무사 및 회사 취업 등 3가지 진로⁵⁾에 집중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1학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 55.7% → 세무사 16.4% → 회사 취업 14.8%로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2·3학년 때 9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졸업반인 4학년 때 다시 입학 시와 동일하게 86.9%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의 경우에는 1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55.7% → 52.5% → 45.9% → 34.4%와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고, 4학년 때 그 정도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셋째, 세무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6.4% → 16.4% → 11.5% → 11.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3학년 때 한 번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넷째, 회사취업의 경우에는 14.8% → 21.3% → 32.8% → 41.0%로 증가하였으며, 2학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세무사 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그 비율이 4.9%만큼 높게 나타났다. 특히 4학년에 들어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비율보다 6.6%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분석대상자 중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미정의 경우에는 입학 시에 5명으로 2·3학년이 됨에 따라 감소하다가 4학년이 될

5)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3가지 진로가 주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필요에 따라 3가지 진로와 그 밖의 진로로 구분하여 비교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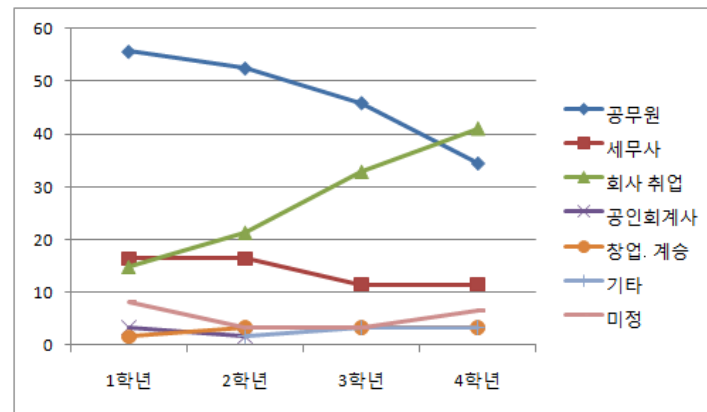
때 다시 4명으로 증가한 바, 이는 사회진출을 앞두고 결정한 진로에 대한 막연함 과 불안감 때문에 진로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⁶⁾

〈표 3〉 분석대상자의 학년별 진로결정 실태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무원	34	55.7	32	52.5	28	45.9	21	34.4	115	47.1
세무사	10	16.4	10	16.4	7	11.5	7	11.5	34	13.9
회사 취업	9	14.8	13	21.3	20	32.8	25	41.0	67	27.5
(소계)	53	86.9	55	90.2	55	90.2	53	86.9	216	88.5
공인회계사	2	3.3	1	1.6	0	0.0	0	0.0	3	1.2
대학원	0	0.0	0	0.0	0	0.0	0	0.0	0	0.0
창업·계승	1	1.6	2	3.3	2	3.3	2	3.3	7	2.9
기타	0	0.0	1	1.6	2	3.3	2	3.3	5	2.1
미정	5	8.2	2	3.3	2	3.3	4	6.6	13	5.3
(소계)	8	13.1	6	9.8	6	9.9	8	13.2	28	11.5
합계	61	100.0	61	100.0	61	100.0	61	100.0	244	100.0

주) 대학원 진학의 경우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그림 2〉 분석대상자의 학년별 진로결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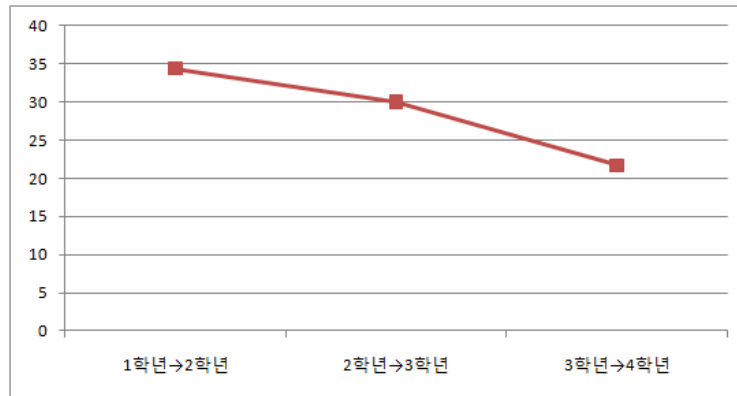
- 6) 본 연구에서는 계속 진로미정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했다가 변경되어 미정인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 모두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학년 때는 진로 미결정자가 5명이었으나 이후 2학년, 3학년 및 4학년 때에도 각각 2명, 2명, 4명으로 나타났다. 입학할 때부터 계속하여 진로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진로를 결정했으나 이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하겠다는 학생도 존재한다.

또한 분석대상자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결정한 진로를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바, <표 4> 및 <그림 3>과 같이 입학 시 결정한 진로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진로를 유지하는 비율은 65.6% → 70.0% → 78.3%로 나타났다. 3학년이 되었을 때 4.4% 그리고 4학년이 되었을 때 8.3% 증가하였다. 진로수정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지만, 4학년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20% 이상의 수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를 조기에 정확히 결정하고,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분석대상자의 진로수정 여부

구 분	1학년 → 2학년		2학년 → 3학년		3학년 → 4학년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유 지	40	65.6	42	70.0	47	78.3	129	70.5
수 정	21	34.4	19	30.0	14	21.7	54	29.5
합 계	61	100.0	61	100.0	61	100.0	183	100.0

<그림 3> 분석대상자의 진로수정 추이



여기에서는 진로수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정 전 진로와 수정 후 진로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는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이 결정된 진로를 수정한다면 어떤 진로에서 수정이 많이 일어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며, 후자는 진로의 수정이 발생 시 어떤 진로로 수정이 발생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수정 전 진로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를 수정한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 5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 및 <그림 4>와 같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학년 때 진로를 수정한 21명 중 9명(42.8%)은 당초 진로가 공무원이었던 경우이며, 이들은 세무사와 회사 취업으로 진로를 수정하였다. 나아가 3·4학년이 되었을 때 공무원을 하려고 한 학생들이 진로를 수정한다면 모두 회사 취업으로 진로를 수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 또한 고학년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세무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진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주로 공무원이나 회사 취업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세무사가 되려고 결심한 학생들은 4학년이 되어서는 진로를 거의 수정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회사 취업을 하려고 했던 학생들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무원이나 세무사 등으로 진로를 수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4학년이 되었을 때 회사 취업에서 다른 진로로 목표를 수정하는 비율(21.3%)은 동일한 시점에서 세무사의 진로수정 비율(7.1%)과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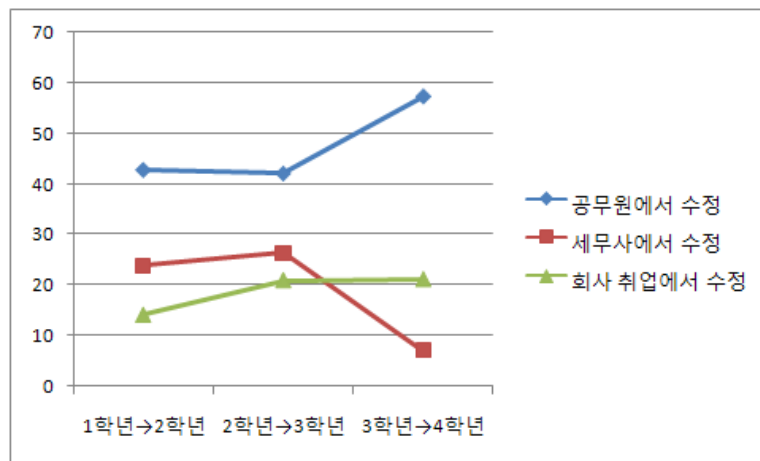
〈표 5〉 진로수정 방향(수정 전 진로 기준)

구 분	1학년→2학년		2학년→3학년		3학년→4학년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무원→세무사	4	19.0					4	7.4
공무원→회사 취업	4	19.0	7	36.8	6	42.9	17	31.5
공무원→창업·계승	1	4.8					1	1.9
공무원→미정			1	5.3	2	14.3	3	5.6
(소계)	9	42.8	8	42.1	8	57.2	25	46.4
세무사→공무원	2	9.5	1	5.3			3	5.6
세무사→회사 취업	2	9.5	4	21.1			6	11.1
세무사→기타	1	4.8					1	1.9
세무사→미정					1	7.1	1	1.9
(소계)	5	23.8	5	26.4	1	7.1	11	20.5
회사 취업→공무원	3	14.3	3	15.8	1	7.1	7	13.0
회사 취업→세무사			1	5.3	1	7.1	2	3.7
회사 취업→기타					1	7.1	1	1.9
(소계)	3	14.3	4	21.1	3	21.3	10	18.6
공인회계사→공무원	1	4.8					1	1.9
공인회계사→기타			1	5.3			1	1.9
(소계)	1	4.8	1	5.3	0	0	2	3.8

〈표 5〉 진로수정 방향(수정 전 진로 기준) (계속)

구 분	1학년 → 2학년		2학년 → 3학년		3학년 → 4학년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타→회사 취업					1	7.1	1	1.9
(소계)					1	7.1	1	1.9
미정→공무원	1	4.8					1	1.9
미정→세무사	1	4.8	1	5.3			2	3.7
미정→회사 취업	1	4.8			1	7.1	2	3.7
(소계)	3	14.4	1	5.3	1	7.1	5	9.3
합 계	21	100.0	19	100.0	14	100.0	54	100.0

〈그림 4〉 주요 진로의 수정 방향(수정 전 진로 기준)



〈표 5〉의 진로수정 방향과는 달리 각 진로를 대상으로 어느 진로에서 수정이 많이 발생하는가를 분석하였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진로별로 대상자 중 어느 정도가 다른 진로로 수정하였는가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첫째, 진로별 수정비율을 보면 공인회계사(66.7%) → 세무사(40.7%) → 공무원(26.6%) → 회사 취업(2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를 수정한 대상자 중에서 각 진로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표 5〉에서와 같이 공무원(46.4%) → 세무사(20.5%) → 회사 취업(18.6%) → 공인회계사(3.8%) 순7)으로 나타남을 알 수

7) 기타와 미정인 경우에는 비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외하기로 한다.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공무원이나 회사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경우보다 진로를 수정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진로별 수정비율

구 분	1학년→2학년			2학년→3학년			3학년→4학년			합 계		
	대상	수정	비율	대상	수정	비율	대상	수정	비율	대상	수정	비율
공무원	34	9	26.5	32	8	25.0	28	8	28.6	94	25	26.6
세무사	10	5	50.0	10	5	50.0	7	1	14.3	27	11	40.7
회사 취업	9	3	33.3	13	4	30.8	20	3	15.0	42	10	23.8
공인회계사	2	1	50.0	1	1	100.0	0	0	0.0	3	2	66.7

주) 기타와 미정인 경우에는 그 빈도수가 적고 유의미한 비교를 위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이 진로를 수정하는 경우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수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정 후 진로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 및 <그림 5>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첫째, 학년을 올라갈수록 공무원과 세무사로 진로를 수정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회사 취업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둘째, 2학년 때 진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회사 취업으로의 수정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공무원과 세무사로의 진로수정 감소분이 회사 취업으로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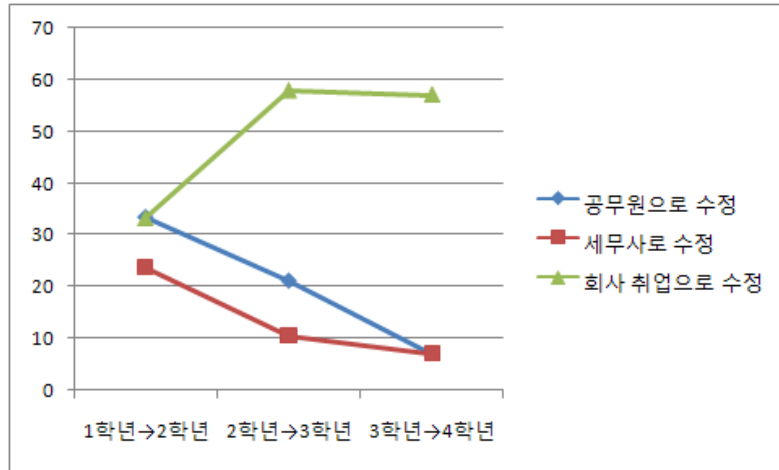
셋째, 마지막 4학년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진로수정은 대부분 회사 취업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진로수정은 대부분 공무원이나 세무사와 같이 어려운 시험이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생활을 하다가 그러한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며 시험에 대한 실패 경험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회사 취업으로 진로를 수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진로를 수정하는 경우에 차선책으로 수정된 진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표 7〉 진로의 수정 방향(수정 후 진로 기준)

구 분	1학년 → 2학년		2학년 → 3학년		3학년 → 4학년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세무사 → 공무원	2	9.5	1	5.3			3	5.6
회사 취업 → 공무원	3	14.3	3	15.8	1	7.1	7	13
공인회계사 → 공무원	1	4.8					1	1.9
미정 → 공무원	1	4.8					1	1.9
(소계)	7	33.4	4	21.1	1	7.1	12	22.4
공무원 → 세무사	4	19					4	7.4
회사 취업 → 세무사			1	5.3	1	7.1	2	3.7
미정 → 세무사	1	4.8	1	5.3			2	3.7
(소계)	5	23.8	2	10.6	1	7.1	8	14.8
공무원 → 회사 취업	4	19	7	36.8	6	42.9	17	31.5
세무사 → 회사 취업	2	9.5	4	21.1			6	11.1
기타 → 회사 취업					1	7.1	1	1.9
미정 → 회사 취업	1	4.8			1	7.1	2	3.7
(소계)	7	33.3	11	57.9	8	57.1	26	48.2
공무원 → 창업 · 계승	1	4.8					1	1.9
(소계)	1	4.8					1	1.9
세무사 → 기타	1	4.8					1	1.9
회사 취업 → 기타					1	7.1	1	1.9
공인회계사 → 기타			1	5.3			1	1.9
(소계)	1	4.8	1	5.3	1	7.1	3	5.7
공무원 → 미정			1	5.3	2	14.3	3	5.6
세무사 → 미정					1	7.1	1	1.9
(소계)			1	5.3	3	21.4	4	7.5
합 계	21	100.0	19	100.0	14	100.0	54	100.0

〈그림 5〉 주요 진로의 수정 방향(수정 후 진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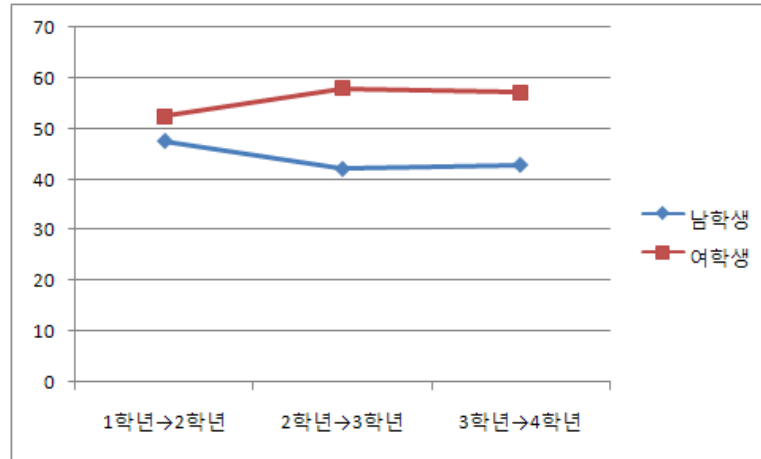


계속하여 성별에 따라 진로수정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 본 결과, <표 8> 및 <그림 6>과 같이 진로를 수정한 54명 중 30명, 즉 55.6%가 여학생인 반면에 남학생은 44.4%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볼 때 여학생이 47.5%로 남학생 52.5%보다 그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로를 수정하는 학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8〉 성별에 따른 진로수정

구 분	1학년 → 2학년		2학년 → 3학년		3학년 → 4학년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학생	10	47.6	8	42.1	6	42.9	24	44.4
여학생	11	52.4	11	57.9	8	57.1	30	55.6
합 계	21	100.0	19	100.0	14	100.0	54	100.0

〈그림 6〉 성별에 따른 진로수정



한편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진로를 수정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9> 및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

첫째, 기타⁹⁾로 분류된 것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막연한 결정(20.4%), 달성 곤란(20.4%) 및 안정적 직장(1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2학년 때 진로수정 시에는 막연한 결정이 23.8%로 높은 반면에 4학년 때에는 달성 곤란이 35.7%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입학 당시에는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세무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입학하게 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의 달성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관계로 진로를 수정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세무학 전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공을 수정하는 경우는 2학년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진로를 수정한 54명 중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진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저학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리적인 진로계획의 결여 등 막연한 진로결정으로 인하여 진로를 수정하게 되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아가는 관계로 진로를 수정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달성곤란을 들고

8) 여기에서 제시하는 진로수정 이유는 이후에 다루는 진로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것은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8가지 이유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진로를 수정하였는가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특히 기타의 경우에는 앞의 7가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그 이유를 기입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회귀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진로수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자들의 직접적인 응답보다는 K대학교에서 구축한 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된 정보에 기초하여 도출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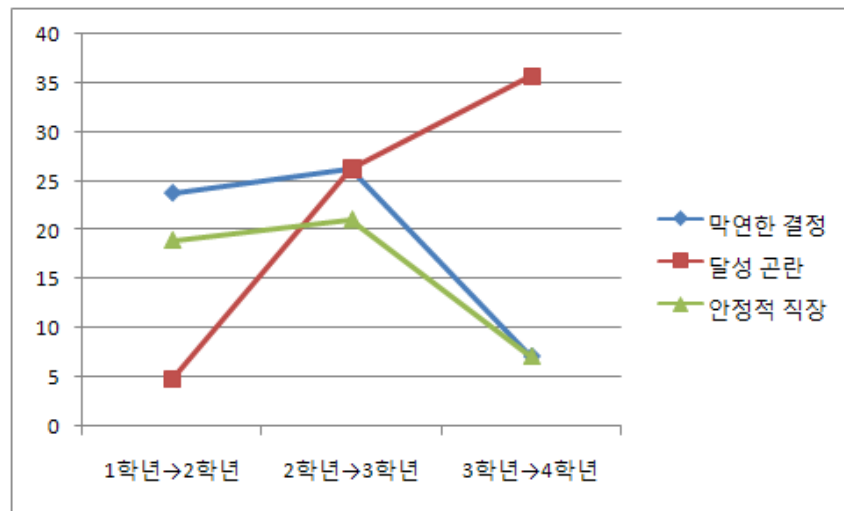
9) 기타의 예로는 ‘세무사 선발 인원은 일정한 반면에 공무원은 선발 인원은 연도별로 편차가 너무 커서, 군 입대나 관련 직업의 선택,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둘 이상의 진로에 관심이 있어서,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등을 들 수 있다.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희망직업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진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표 9〉 진로수정 이유

구 분	1학년 → 2학년		2학년 → 3학년		3학년 → 4학년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막연한 결정	5	23.8	5	26.3	1	7.1	11	20.4
달성 곤란	1	4.8	5	26.3	5	35.7	11	20.4
안정적 직장	4	19.0	4	21.1	1	7.1	9	16.7
적성 부적합	2	9.5	3	15.8			5	9.3
경제 곤란	1	4.8					1	1.9
전공 어려움							0	0.0
선배 합격	2	9.5			1	7.1	3	5.6
기 타	6	28.6	2	10.5	6	42.9	14	25.9
합 계	21	100.0	19	100.0	14	100.0	54	100.0

〈그림 7〉 진로수정 주요 이유



3.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0>과 같다. 먼저 성적(SCR)은 분석대상자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실제 성적, 즉 평점을 구한 것이다. 이것은 K대학교의 종합정보시스템¹⁰⁾을 활용하였다. 해당 학년별로 개별 학생에 대하여 1학기 및 2학기의 평점을 산출하여 반영하였다. 성적 이외의 변수들은 모두 더미변수로 되어 있다.

<표 10> 기술통계량

변 수 명		표본수	평 균	표준편차	비 고
종속변수	진로변경 여부(CHG)	183	—		0,1의 더미변수
독립변수	성적(SCR)	183	3.524	0.5596	4.5만점 기준
	2학년(SPM)	183	—		0,1의 더미변수
	3학년(JNR)	183			
	공무원(OFC)	183			
	세무사(CTA)	183			
	회사 취업(COM)	183			
	공인회계사(CPA)	183			
	창업·계승(BNS)	183			
	기타(ETC)	183			
	성별(SEX)	183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이 SPM과 SCR, SPM과 JNR, CTA와 OFC, COM과 OFC, CTA와 COM 그리고 BNS와 SCR 간에는 1% 수준에서, BNS와 OFC 그리고 SEX와 BNS 간에는 5% 수준에서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반면에 CTA와 SCR 간에는 5%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변수의 특성상 SCR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더미변수로 되어 있는 관계로 상관관계수가 부(-)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진로를 공무원, 세무사 및 회사 취업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이들 간에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상관

10) K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성적, 면담, 수업, 등록, 장학, 취업, 진로 및 학습탐색과 계획 등 학생이 입학할 때부터 졸업 이후까지 학생에 관한 모든 자료를 탑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사운영, 학생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진로지도 등을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보안을 위하여 열람은 교내에서만 가능하고 학생과 권한이 부여된 교직원에게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부여된다.

관계를 나타냈고, 2학년 학생일수록 그리고 창업 및 사업 계승을 원하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낮으며 여학생일수록 창업과 사업계승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좋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Spearman 상관계수)

구 분	CHG	SCR	SPM	JNR	OFC	CTA	COM	CPA	BNS	ETC
SCR	0.002									
SPM	0.076	-.195**								
JNR	0.025	-0.131	-.500**							
OFC	-0.066	-0.137	0.062	0.015						
CTA	0.102	.166*	0.033	0.033	-.428**					
COM	-0.068	0.069	-0.138	-0.028	-.561**	-.227**				
CPA	0.105	0.011	0.091	0	-0.133	-0.054	-0.07			
BNS	-0.108	-.239**	-0.047	0.024	-.172*	-0.07	-0.091	-0.022		
ETC	0.011	0.134	-0.091	0	-0.133	-0.054	-0.070	-0.017	-0.022	
SEX	0.104	0.084	0	0	0.094	-0.057	0.105	-0.123	-.160*	-0.123

주1) 변수의 정의

CHG : 진로수정 여부(수정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SCR : 성적

SPM : 2학년 여부(2학년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JNR : 3학년 여부(3학년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OFC : 공무원(진로가 공무원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CTA : 세무사(진로가 세무사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COM : 회사 취업(진로가 회사취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CPA : 공인회계사(진로가 공인회계사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BNS : 창업·계승(진로가 창업·계승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ETC : 기타(진로가 기타의 경우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SEX : 성별(여학생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2) ** : $p < 0.01$, * : $p < 0.05$

진로수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¹¹⁾ 먼저 <표 12>와 같이 Hosmer와 Lemeshow 검정을 통하여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분석 결과, 카이제곱은 6.113이고 유의확률은 0.635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¹²⁾

11)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VIF의 최대값이 5.65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

이는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작으며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진로수정 여부를 나타내는 모형은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표 12〉 Hosmer와 Lemeshow 검정

단 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	6.113	8	.635

또한 진로유지와 수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분석을 한 결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를 유지한 경우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93.0%로 높았으나, 반면에 진로를 수정한 것을 수정으로 정확하게 분류한 것은 18.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이 진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설명력은 71.0%로 모형 분류 설명력이 있다고 판단된다.¹³⁾

〈표 13〉 분류표

구 분		예 측 값		
		수정 여부		분류정확 %
		0	1	
관 측 값	유지 0	120	9	93.0
	수정 1	44	10	18.5
전체 %				71.0

진로수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 내지 4를 검정하기 위해 진로수정 여부(CHG)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첫째, 공무원(OFC)과 회사 취업(COM)으로 진로를 정한 경우에는 회귀계수가 각각 -1.353, -1.459이며, 이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값인 Wald 통계량은 각각 3.458, 3.427이고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과 회사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른 진로에 비하여 진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할 의사가 높음을 말해 준다.¹⁴⁾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12) 만약 그 값이 유의적으로 나타나면 모형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13) 분류 설명력은 60% 이상이어야 회귀식의 설명력이 있다고 한다.

14) 진로별로 수정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한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이나 회사

둘째, 진로를 결정하는 대상자가 여학생(SEX)인 경우 0.604의 회귀계수와 2.887의 Wald 통계량을 보이고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일수록 진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장에서 진로지도를 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지도를 수행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셋째, 성적, 2학년 여부, 3학년 여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창업·계승 및 기타변수는 진로수정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10% 수준에서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다만, 성적, 2학년, 3학년 및 공인회계사변수는 정(+)의 부호를, 반면에 세무사, 창업·계승 및 기타변수는 부(-)의 부호를 보임으로써 진로수정의 여부에 성적, 학년승급 등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과 2는 기각되었다.

요컨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일반기업체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일수록 진로를 수정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큰 반면에 여학생일수록 진로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누가 결정하였는지에 따라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1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text{CHG} = \alpha + \beta_1\text{SCR} + \beta_2\text{SPM} + \beta_3\text{JNR} + \beta_4\text{OFC} + \beta_5\text{CTA} + \beta_6\text{COM} + \beta_7\text{CPA} + \beta_8\text{BNS} + \beta_9\text{ETC} + \beta_{10}\text{SEX} + \varepsilon$$

변 수 명	B	S.E.	Wald	df	Sig.	Exp(B)
SCR	.054	.347	.024	1	.877	1.055
SPM	.429	.455	.889	1	.346	1.535
JNR	.386	.440	.770	1	.380	1.472
OFC	-1.353	.728	3.458	1	.063	.258
CTA	-.653	.795	.675	1	.411	.520
COM	-1.459	.788	3.427	1	.064	.233
CPA	.568	1.410	.162	1	.687	1.764
BNS	-21.110	17,926.030	.000	1	.999	.000
ETC	-.562	1.432	.154	1	.695	.570
SEX	.604	.355	2.887	1	.089	1.829
Constant	-.482	1.491	.104	1	.747	.618

주) 변수의 정의는 <표 11>을 참조함.

취업을 진로로 정한 학생들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정한 학생들보다 진로를 수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의 진로결정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진로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K대학교 세무학과 4학년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의 진로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본 연구의 응답자는 주로 공무원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에 입학하나 고학년이 될수록 그 수는 감소하고 대신 회사 취업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 ② 진로수정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지만 4학년이 되었을 때에도 20% 이상을 보였고, 진로수정은 공무원, 세무사 및 회사 취업 간에 주로 발생하고 종국적으로는 회사 취업으로 수정이 발생하였다.
- ③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진로를 수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진로를 수정하는 이유로 막연한 결정 → 달성곤란 → 안정적 직장을 들었다.
- ④ 진로수정 여부에 공무원과 회사 취업변수는 10%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반면에 여학생변수는 10%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K대학교 세무학 전공자들을 위한 진로지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수정률을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지만, 전 학년에 걸쳐서 30%에 달하므로 진로를 조기에 정확히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학 및 학과차원에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무원과 세무사에서 회사 취업으로 진로수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정된 진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취업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입학 이후 진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목표한 진로를 향해 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갖춰야 함은 지극히 당연할 일이다. 대학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무엇보다도 진로수정 없이 한 길을 향해 매진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을 통한 안정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분야별로 학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학 전공이 개설된 전국의 관련 학과가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전공 학생들의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공통된 프로그램과 개별 대학에 적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요컨대 세무학 전공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로지도로 진로탐색의 조기 실시, 진로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며, 진로별, 학년별 및 성별을 차별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요청됨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전국의 세무학과 및 관련 전공이 개설된 대학에서 세무학 전공자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분석대상자 집단을 K대학교 세무학과 4학년에 한정된 관계로 표본수가 작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분석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같은 대학 내의 다른 전공 또는 다른 대학 간의 같은 전공을 하는 학생까지 확대할 경우 그 의미가 확대될 것이다.

둘째, 세무학 전공자들의 진로수정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심리학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절차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를 시행하여야 하겠다. 특히 연구범위와 대상을 늘리고 세부적인 관련 변수 등을 찾아 모두 체계적으로 반영한 후 분석을 실시할 경우 연구결과가 보다 더 일반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계현. 1995. 『상담심리학』. 학지사.
- 김병숙. 2006. 『직업상담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주영. 2005. “과학에 대한 태도와 진로 확신 수준이 여성의 이공계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열 · 김대영. 2006.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실태”. 직업교육연구 제26권 제1호 : 1 - 32.
- 서정선. 2002.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 및 가정배경 변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청. 1993. “대학의 자율과 책무”. 고등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 1 - 14.
- 이혜영. 2006. “대학편입준비생의 진로수정요인 및 편입결과기대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미. 2009. “미용학과 재학생들의 학업 만족도와 향후 진로 방향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숙은. 2010. “특성화된 전문계 고교 학생의 진로선택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은영. 2009. “대학생 대상 진로지도 교과목 운영의 효과”. 직업교육연구 제28권 제4호 : 77 - 94.
- 황매향 · 손만익 · 강혜영. 2007. “대학생 대상 진로탐색 교과목 운영의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제8권 제1호 : 71 - 91.
- Leibowitz, Z. B., and Lea, H. D., eds. 1985. *ADULT CAREER DEVELOPMENT*. Alexandria, VA :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ED 325 749).
- Kerka, S., 1991. *Adults in Career Transition*, Columbus :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Center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loyment, the Ohio State University. (ERIC Digest No.115) ; [http : //www.eric.ed.gov/PDFS/ED338896.pdf](http://www.eric.ed.gov/PDFS/ED338896.pdf).

A Study on the Taxation Major's Career Path and Its Change

- The Case of Department of Taxation in K University -

Im-Soo Choi*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how taxation majors decide on their careers and the factors that play a role on change of them. We surveyed 61 seniors from Department of Taxation in K University and studied the career data generated by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covering freshmen to seniors. And we found the followings from the study.

First, 72.1% of student chose the field to become government workers and certified tax accountants and the change on career path diminished as they proceed to higher years. Those who change their career paths wanted to enter private corporations. Also, it turned out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change their paths.

Secondly, the reasons for changes are obscure decision-making, difficulties in achieving goals, and stability, in order for likelihood.

Thirdly, it appeared that government and private corporate jobs made negative effect in the range of 10% and female student factor made positive effect in the range of 10% on change of career paths.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systematic and effective career guidance for taxation majors to explore their options from the early stage, and plan ahead and prepare for future career goals. Also it is suggested that those guidance should be customized for each different path, each year, and each sex.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has provided the data that would help the schools with department of taxation search directions for career guiding and establish roadmap for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Key words〉 decision of career path, change of career path, government workers, certified tax accountant, corporation employment

* Professor, Department of Taxation, Konyang University

설문지*

1. 1학년 입학 시 진로목표는?

- | | | |
|---------------|-------------|---------------|
| ① 공무원 시험 합격 | ② 세무사 시험 합격 | ③ 회사 취업 |
| ④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⑤ 대학원 진학 | ⑥ 창업 또는 사업 계승 |
| ⑦ 기타 | ⑧ 정하지 않음 | |

2. 2학년 시작 시 진로목표는?

- | | | |
|---------------|-------------|---------------|
| ① 공무원 시험 합격 | ② 세무사 시험 합격 | ③ 회사 취업 |
| ④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⑤ 대학원 진학 | ⑥ 창업 또는 사업 계승 |
| ⑦ 기타 | ⑧ 정하지 않음 | |

3. 1학년 입학 시와 2학년 시작 시 진로목표가 다른 경우, 그 이유는?

- | | | |
|----------------|---------------|--------------|
| ① 막연한 생각으로 정해서 | ② 목표 달성이 어려워서 | ③ 안정적인 직장 위해 |
| ④ 적성이 맞지 않아 | ⑤ 경제적으로 어려워 | ⑥ 전공 수업이 어려워 |
| ⑦ 선배가 시험에 합격하여 | ⑧ 기타 | |

4. 3학년 시작 시 진로목표는?

- | | | |
|---------------|-------------|---------------|
| ① 공무원 시험 합격 | ② 세무사 시험 합격 | ③ 회사 취업 |
| ④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⑤ 대학원 진학 | ⑥ 창업 또는 사업 계승 |
| ⑦ 기타 | ⑧ 정하지 않음 | |

5. 2학년 시작 시와 3학년 시작 시 진로목표가 다른 경우, 그 이유는?

- | | | |
|----------------|---------------|--------------|
| ① 막연한 생각으로 정해서 | ② 목표 달성이 어려워서 | ③ 안정적인 직장 위해 |
| ④ 적성이 맞지 않아 | ⑤ 경제적으로 어려워 | ⑥ 전공 수업이 어려워 |
| ⑦ 선배가 시험에 합격하여 | ⑧ 기타 | |

6. 4학년 시작 시 진로목표는?

- | | | |
|---------------|-------------|---------------|
| ① 공무원 시험 합격 | ② 세무사 시험 합격 | ③ 회사 취업 |
| ④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⑤ 대학원 진학 | ⑥ 창업 또는 사업 계승 |
| ⑦ 기타 | ⑧ 정하지 않음 | |

7. 3학년 시작 시와 4학년 시작 시 진로목표가 다른 경우, 그 이유는?

- | | | |
|----------------|---------------|--------------|
| ① 막연한 생각으로 정해서 | ② 목표 달성이 어려워서 | ③ 안정적인 직장 위해 |
| ④ 적성이 맞지 않아 | ⑤ 경제적으로 어려워 | ⑥ 전공 수업이 어려워 |
| ⑦ 선배가 시험에 합격하여 | ⑧ 기타 | |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설문은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관한 내용을 K대학교의 종합정보시스템 상 나타나 있는 것과 비교·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